

성북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성북구가 4월 24일까지 서울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제조 현장의 노후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작업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성북구는 지난해 관내 40개 도시제조업에 작업환경개선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생산 경쟁력 강화와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작업장의 위험-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비를 지원받게 된다. 재해 예방을 위한 1대1 안전관리 컨설팅과 업종별 맞춤형 안전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에 소재한 5대 도시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와 컨설팅, 교육, 최대 3년간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고,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설치 등 12종과 냉난방기, LED조명, 콤팩트서 등 근로환경 개선 14종, 바꿈다이, 작업대, 곤돌라 등 작업능률 향상

8종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720만 원 내외로, 총사업비의 90%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성북구는 4월 24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현장 실태조사와 서울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도시제조업은 우리 구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이자 오랜 시간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힘쓰고 더 많은 소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천 벚꽃시즌 시민 안전 최우선...금천구, 총력 대응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봄철 벚꽃 개화시기를 맞아 안양천을 찾는 상춘객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안양천 벚꽃길 방문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지역의 벚꽃은 4월 초 개화하여 4월 10일 사이에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상춘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안양천 벚꽃길에서의 시민 안전을 위해 4월 3일부터 14일까지 12

일간을 안양천 벚꽃길 방문객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했다. 우선 구는 주민안전과를 필두로 치수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안양천 안전관리 대책반'을 구성한다. 대책반은 인과 밀집 상황을 총괄 관리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수습을 담당한다. 특히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독산보도교에서 광명대교까지는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과 구 직원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다. 총 37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요원들

은 인과 밀집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며 방문객의 안전 이동을 유도하고, 파손된 시설물 등 안전 위해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별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해 필요한 경우 방문객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구는 안양천 일대에 설치된 30개소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인과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밀집도가 높아질 경우 안내 방송을 송출해 인과 분산을 유도하며,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24시간 집중 상황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남구, 양재천서 즐기는 예술 소풍...시각예술 기획전 '아트 피크닉'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에서 참여형 시각예술 기획전 '아트 피크닉(ART PICNIC)' : 함께 그리는 마음의 이야기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양재천 산책로를 찾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예술을 보다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프로젝트 '열의 이유'·이은구·임모이 작가 참여하며, 전시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만화 페이지처럼 구성한 것

이 특징이다. 관람객은 작품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 안을 거닐며 장면의 일부가 돼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게 된다. 전시장 바닥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만화 칸이 펼쳐진다. 관람객은 그 위에 앉거나 칸 사이를 오가며 공간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관람객의 움직임 자체가 하나의 장면이 되면서 전시장 전체가 살아 있는 만화 페이지처럼 구현된다.

비어 있는 말풍선과 '말풍선 도시락' 오브제도 설치된다. 관람객은 준비된 쿠션과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직접 장면을 만들고, 만화 칸을 떠나며 마지막 페이지씩 넘기듯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다. 만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전시의 매력이다. 전시장에는 작가들의 동화적이고 이색적인 일러스트 작품 27점도 함께 선보인다.

민생경제안심센터 출범, '구독 하지·환불 분쟁' 피해 상담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확대 개편...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 즉각 대응·권리구제 강화

피해 징후 사전 포착하고 피해 발생 시, 전용 상담창구·번호 즉시 개설해 집중 상담 운영

서울시가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해 오는 4월 1일(수)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했다. 이슈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며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운영해 왔다. 최근 3년간 총 45,815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94.4%의 높은 상담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이 꾸준히 이용하며 신뢰를 받아 왔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구독서비스, 해외직구 등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7개 분야 중심 상담체계로는 즉각적인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신유형·돌발 민생경제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했다.

이슈 발생 시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와 별도 상담번호를 즉시 개설하고, 피해를 신속히 접수하여 집중상담을 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3년 소비자 상담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 반복 피해를 사전에 예측



하고, 전 분기 상담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피해 급증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언론 모니터링과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파급이 큰 이슈를 선정하고, 피해 유형별 집중상담과 맞춤형 피해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 풀을 활용해 피해상담, 내용증명 및 소장 작성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통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

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를 제공한다. 해당 가이드는 3천만 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22개 주요 피해별 쟁점을 정리하고, 사례 중심의 소장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청년층 대상 범죄 피해에도 대응하기 위해 신고 및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보이스포싱, 스미싱, 사이버 사기 등 범죄 피해 신고 연계를 지원하며, 전화(1600-0700, 9번)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피해 신고와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심리 회복과 금융지원 등 회복 프로그램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전화(1600-0700), 누리집(https://sftc.seoul.go.kr), 방문(서소문2층사 7층)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시민이 민생경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상담 창구로서 다양한 민생경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성 기자

서울신보 골목경기 동향 분석 확대로 소상공인 경영해법 제시

월별 경기동향에 더해 업종별 매출·소득, 경영애로·자금 용도까지 분석 범위 확대

서울신보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이 매월 발간하는 「서울시 구석구석 골목경기 동향」이 월별 골목경기 동향에 더해 업종별 매출·소득과 경영애로, 자금 활용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했다. 소상공인 체감경기를 다양한 항목으로 진단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서울신보는 소상공인의 업종·업력·연령별 매출·소득과 세부 업종별 경영애로 및 자금 활용 분석을 새롭게 추가한 「서울시 구석구석 골목경기 동향」 3월호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서울신보는 서울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골목경기 동향을 매월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보가 매월 발표하는 "서울시 구석구석 골목경기 동향"은 서울신보 25개 종합지원센터의 상담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과 매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소상공인 경영진단과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는 경쟁심화가 6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원재료비 상승(22.3%), 대출상환 이자부담(5.1%), 인건비 상승(4.7%)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중식 음식점업(68.2%),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68.1%), 도소매업은 무점포 소매업(67.0%)에서 경쟁 심화가 두드러졌다. 세부 업종별로 외식업은 중식 음식점업(68.2%), 서양식 음식점업(61.9%), 카

페 및 제과점업(57.5%) 순,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68.1%), 스포츠·여가 서비스업(67.8%), 교육 서비스업(63%)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금 활용 용도는 원자재 구매(53.5%)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이어 운영경비 충당(29.2%), 인건비 지급(7.7%)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화장품 등 생활용품 도매업에서 원자재 비용 부담이 크게 두드러졌다.

서울신보보증재단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이장성 기자

오세훈 시장, 민생현장방문 2호 쌍문역 상점가 상권 활성화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목) 오전 11시 30분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 상점가, 일명 '쌍리단길'을 찾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월 노량진 만나로 방문에 이어 두 번째 민생현장 방문이다.

200여 개의 상점이 소재한 쌍문역 동측 상점가(도봉구 창동)는 2019년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급감했으며 최근 골목을 중심으로 음식점, 카페 등이 늘어나고 서울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상권을 차츰 회복해 가고 있다.

오 시장은 상인회장과 상인들로부터 쌍리단길 상권 현황에 대해 듣고 직접 골목을 돌며 의상실, 제과점, 음식점 등 상인들의 목소리도 경취했다.

또 지난날 '힘보탬 박람회'에서 만났던 소상공인이 운영 중인 음식점을 찾아 창업 히스토리, 경영 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소상공인 5명 중 1명이 1년 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위기에 직면해 있

어 지금 지원, 특별보증, 소비 촉진 등 서울시가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 중"이라며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 민생현장을 계속 찾은 소상공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찾은 카페전문점 점주는 "요리라고 전혀 해 본 적 없던 제가 프랩 아카데미, 상권분석 서비스, 동기도 도움 등으로 음식점을 창업하게 됐다"며 "창업매장 사후관리, 안심통장, 자영업 클리닉 등 촘촘한 지원에 매출도 개선되고 이제 프랩아카데미 선배 특강에 갈 정도로 성장하게 돼 서울시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물가·고환율에 중동 전쟁까지 덮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시는 ▲안심통장 지원규모 확대 ▲희망동행자금 상환기간 연장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확대 ▲상권분석 시스템 고도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해 데 이어 3.26(목)~3.27(금)에는 DDP에서 소상공인 상담부터 판로 개척, 교육까지 지원하는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장성 기자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사업 안내

■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주요 세제 혜택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실행하면, 토지분 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 임야(종합합산)	경영계획 실행 임야(분리과세)
재산세율	2~5/1,000	0.7/1,000
대상 지역	일반 산지 등	보전산지 중 경영계획 인가 후 사업지 등
추가 혜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 유의사항: 필지별 용도 및 사업 실행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조합과 사전 상담(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 기간이 10년 이상인 임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고 대행 안내

- 복잡한 서류 작성과 행정 절차, 우리 조합은 산주님의 편의를 위해 경영계획서 작성부터 사업신고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이용 대상: 산림을 가꾸고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산주 및 조합원
- 기대 효과: 전문적인 산림 관리, 임목 가치 상승, 세금 부담 경감

"내 산의 미래, 용인시산림조합이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고 소중한 자산인 산림의 가치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산림조합, 숲가꾸기 보조사업(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안내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사업이란 ?

- 기존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숲가꾸기 사업'을 우리 조합이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발주부터 현장 시행까지 전 과정을 조합이 책임지고 운영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경영을 지원합니다.

■ 숲가꾸기, 왜 필요하나요 ?

- 숲을 건강하고 우량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산을 관리하고 싶지만 기술이나 장비, 인력이 부족해 고민이신 산주 및 조합원님을 위해 용인시산림조합이 직접 도움을 드립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동서서 제출만으로 내 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사후 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실행 후 5년 이내에 산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동의 기간:** 동서의 작성일로부터 3년간 사업 실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 031-338-4143

용인시산림조합